**왕하1617 Note**

**솔로몬 성전의 물두멍들 / Cross check 왕상0723-40**

왕상0723. 그리고 그가 주조된 바다(큰 물두멍)[얌:바다,파도의 큰 덩치,지중해,큰 강,(인공적인)대야,서부,(드물게)남부,남쪽,서쪽,서편의]를 만들었으니, 한 가장자리로부터 다른 가장자리까지 열 규빗이었느니라, 그것이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가 다섯 규빗이었느니라, 그리고 삼십 규빗의 줄자가 그것을 빙 둘러 에워쌌느니라,

왕상0724. 그리고 그것의 가장자리 아래에 빙 둘러서, 그것을 에워싸는 봉오리 모양의 둥근 장식[페카:반구(공),봉우리 모양의 장식,박]이 바다를 빙 둘러 에워싸면서, 한 규빗 안에 열씩 있었느니라, 봉오리 모양의 둥근 장식들은 그것이 주조되던 때에, 두 줄로 주조되었느니라,

왕상0725. 그것이 열 둘의 소들 위에 서있었으니, 북쪽을 향해 바라보는 셋과, 서쪽을 향해 바라보는 셋과, 남쪽을 향해 바라보는 셋과, 동쪽을 향해 바라보는 셋이니라, 그리고 바다가 그것들 위에 높이 놓여졌느니라, 그리고 그것들의 모든 뒷부분들은 안을 향하였느니라,

왕상0726. 그리고 그것이 손 너비의 두께였으며,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와 같이 백합화들로써 작업되었느니라, 그것이 이천의 밧(바트:한 밧,히브리 유량의 측정단위 밧)들을 담고 있었느니라,

왕상0727. 그리고 그가 황동으로 열의 받침대(메코나:토대,지점,기초)들을 만들었으니, 넷 규빗이 한 받침의 길이, 넷 규빗이 그 너비, 셋 규빗이 그 높이였느니라,

왕상0728. 그리고 받침대들의 작업은 이 방식이었느니라, 그것들이 가장자리[미쓰게레트:둘러싸는 어떤 것,(지역이나 널판의)가장자리,성채,변두리,견고한 장소,구멍,턱]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가장자리들은 턱(솰라브:공간을 메우는 것,돌출한 가로대,어떤 틀이나 널판의 디딤판,선반,판자)들 사이에 있었느니라,

왕상0729. 그리고 턱들 사이에 있던 가장자리들 위에 사자들과 소들과 케루브들이 있었느니라, 그리고 턱들 위에 받침대 상부(上部)가 있었느니라, 그리고 사자들과 소들 밑에 얇은 세공품으로 만들어진 어떤 부가물(모라드:비탈,건축에서 장식용 부가물,꽃줄 장식,내려감,가파른 곳,얇은 세공품,변죽)들이 있었느니라,

왕상0730. 그리고 낱낱의 받침대가 넷의 청동 바퀴들과 청동 판(쎄렌:축,귀족,군주,금 은제의 접시)들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 넷의 구석들이 밑에서 받치는 것[카타르:(본래 의미는 팔의 위끝, 옷이 걸리는 곳으로서)어깨,옆에 곁들이는 물건,어떤 것의 측면 돌출 부분,팔,구석,어깨쭉지,받치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물두멍[키요르:(파내거나 도려낸 것으로서)둥근 어떤 것,숯불용 풍로 남비,요리용 솥,물두멍,강단,연단,화로,남비,대야] 아래에 주조된 밑에서 받치는 것들이 낱낱의 덧붙임[로야:화환,화환모양의 덧 붙임)의 측면에 있었느니라,

왕상0731. 머리(코테레트:주랑의 머리,기둥머리) 안과 위의 그것의 입이 한 규빗이었느니라, 그러나 그 입은 받침대(켄:대,받침,자리,지위,직무,위치)의 생김새를 좇아 둥글고, 한 규빗 반이었느니라, 또한 그것의 입 위에 둥글지 않고 정사각형(라바:사면으로 되어있다,네모반듯하다,정사각형이다,네모,네모진)의 그 가장자리들과 함께 새김[미클라아트:새긴 조각,새겨진(형태),새기기,조각하다]들이 있었느니라,

왕상0732. 그리고 가장자리들 아래에 넷의 바퀴들이 있었으며, 바퀴들의 차축나무들이 받침대에 연결되었느니라, 그리고 바퀴의 높이가 한 규빗 반이었느니라,

왕상0733. 그리고 바퀴들의 생김새가 전차바퀴의 생김새와 같았느니라, 그 차축나무들과 그 바퀴 중심부[가브:(둥근것의)뒤,꼭대기,가장자리,도목,둥근 천정,눈의 반원형,보루,후면,몸체,뛰어난 (높은)장소,눈썹,바퀴테,고리]들과 그 바퀴테(힛슈크:함께 이어진,바퀴 멈춤대,중심바퀴 통과 바퀴테를 연결하는 살,바퀴의 살)들과 그 바퀴살[힛슈르:연결된,바퀴의 통,(살들을 함께 지탱하는 곳으로서)중심 통,통]들이 모두 주조되었느니라,

왕상0734. 한 받침대의 넷 구석들에 넷의 밑에서 받치는 것[카타르:(본래 의미는 팔의 위끝, 옷이 걸리는 곳으로서)어깨,옆에 곁들이는 물건,어떤 것의 측면 돌출 부분,팔,구석,어깨쭉지,받치는 것]들이 있었느니라, 그 밑에서 받치는 것들은 바로 받침대 그 자체에 속하였느니라,

왕상0735. 그리고 받침대의 정상에 반 규빗 높이의 둥근 원형(圓形)[싸바브:원(圓),이웃,주변,주위에,(장소,둘레)주변에,범위,모든 면,사면(四面)]이 있었으며, 받침대의 정상 위에서 그 턱[야드:손,(힘,수단,방향을 가리키는)편 손,힘이 미치다,할 수 있다,차축,지경,채권자,보호,빚,지배,세력,버팀대,몫,고통,힘,봉사,힘을 다하여 당기다,엄지 손가락,수종들다,일하다]과 그 가장자리[미쓰게레트:둘러싸는 어떤 것,(지역이나 널판의)가장자리,성채,변두리,견고한 장소,구멍,턱]들이 바로 그것에 속해 있었느니라,

왕상0736. 이는 그 턱들과 그 가장자리들의 표면 위에, 그가 낱낱의 것의 비율에 따라서 케루브들과 사자들과 종려나무들과 주변의 덧붙임(로야:화환,화환모양의 덧 붙임)들을 새겼음이라,

왕상0737. 이 방식을 좇아서, 그가 열의 받침대들을 만들었으니, 그것들 모두가 같은 주조방식과 같은 칫수와 같은 규격을 가지고 있었느니라,

왕상0738. 다음에 그가 황동으로 열의 물두멍[키요르:(파내거나 도려낸 것으로서)둥근 어떤 것,숯불용 풍로 남비,요리용 솥,물두멍,강단,연단,화로,남비,대야]들을 만드니라, 한 물두멍이 사십의 밧(바트:한 밧,히브리 유량의 측정단위 밧)을 담았으며, 낱낱의 물두멍은 넷 규빗이었느니라, 그리고 열의 받침대들의 낱낱의 것 위에 한 불두멍이 있었느니라,

왕상0739.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오른편에 다섯의 받침대들을 놓고, 그 집의 왼편에 다섯을 놓으니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오른편에, 남쪽을 마주보는 건너편 동편으로 바다(큰 물두멍)[얌:바다,파도의 큰 덩치,지중해,큰 강,(인공적인)대야,서부,(드물게)남부,남쪽,서쪽,서편의]를 놓으니라,

왕상0740. 그리고 히람이 물두멍[키요르:(파내거나 도려낸 것으로서)둥근 어떤 것,숯불용 풍로 남비,요리용 솥,물두멍,강단,연단,화로,남비,대야]들과 삽(야:삽)들과 대야[미즈라크:(마치 물을 뿌리기 위한)주발,대야 주발]들을 만드니라, 그렇게 히람이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만드는 모든 일을 행하기를 그가 마쳤으니,